

6. 보건과 의료

6-1 전남 도내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이용횟수

6-2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

6-3 의료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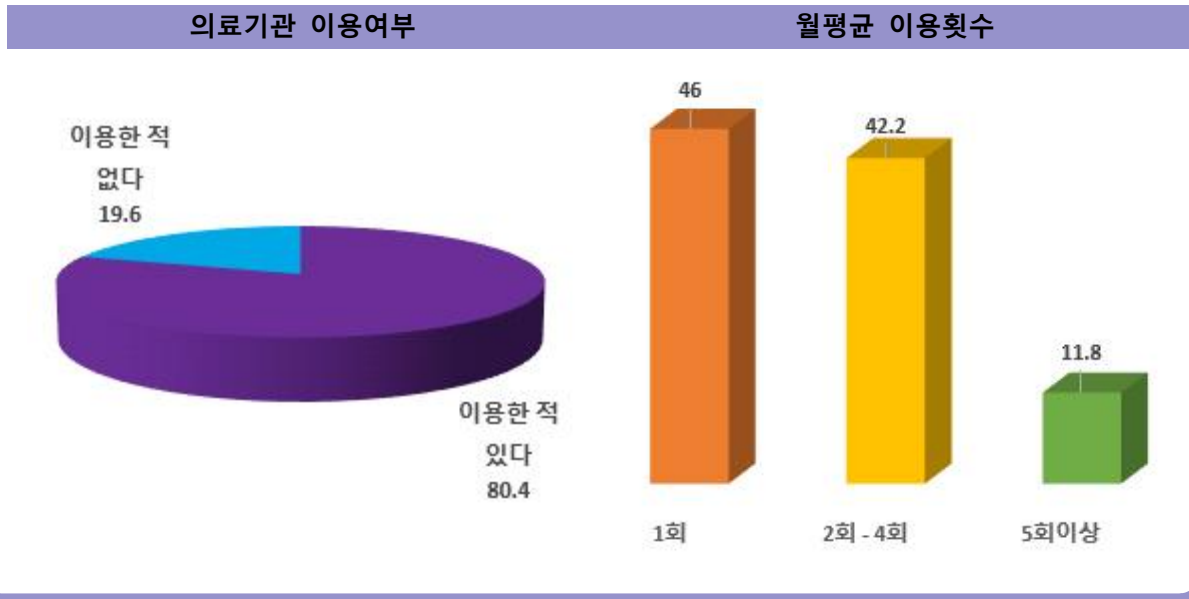
6-4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6-5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6 - 1 전남 도내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이용횟수

도내 의료기관의 이용은 80.4%가 이용
월평균 이용횟수는 1회 46.0%

- 전남 도내 의료기관이용 여부는 응답자의 80.4%가 이용, 월평균 이용횟수 「1회」 46.0%, 「2회-4회」 42.2%, 「5회 이상」은 11.8%의 순으로 나타남
- 전남도내 의료기관의 이용여부는 여성은 84.7%, 남성은 76.5%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용하고 있음.
- 연령이 높을수록 도내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높아짐, 65세 이상은 응답자의 96.4%가 이용
- 「월1회」 이용횟수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6-1> 전남 도내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이용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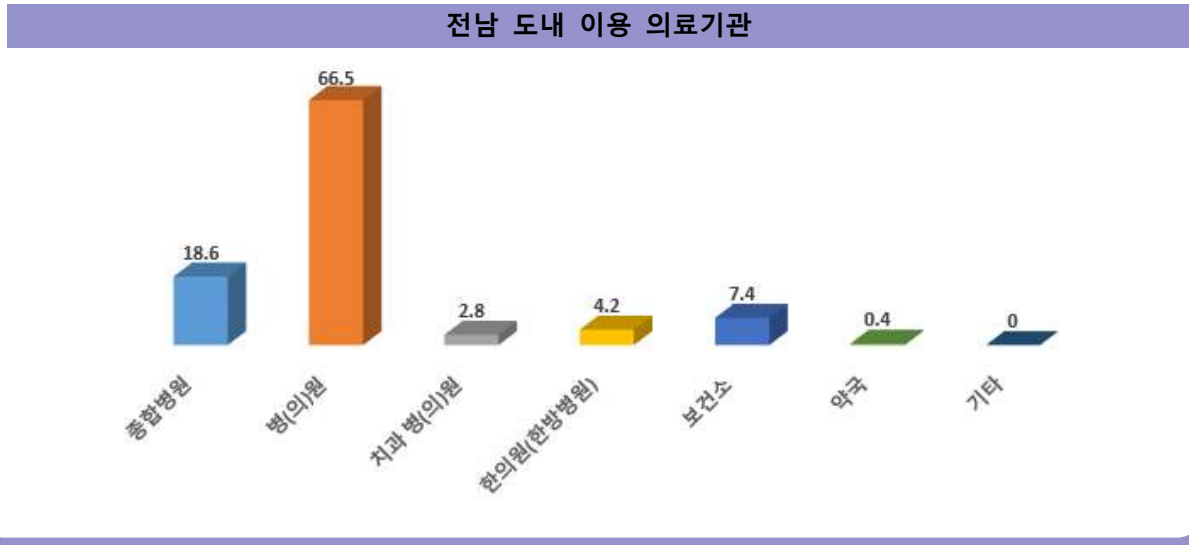
구 분	계	이용한적 있다	월평균 이용횟수				이용한 적 없다
			소계	1회	2회 - 4회	5회이상	
2018년 (지역별)	100.0	80.4	100.0	46.0	42.2	11.8	19.6
중부권	100.0	88.5	100.0	36.4	47.4	16.2	11.5
북부권	100.0	67.9	100.0	42.0	45.4	12.7	32.1
서남부권 (성별)	100.0	80.3	100.0	58.3	34.9	6.8	19.7
남자	100.0	76.5	100.0	49.2	41.3	9.5	23.5
여자	100.0	84.7	100.0	42.7	43.0	14.2	15.3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6 - 2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

도내 이용 의료기관은 주로 병원

-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은 「병원」 66.5%, 「종합병원」 18.6%, 「보건소」 7.4%, 「한의원」 4.2%의 순으로 나타남
- 「병원」이용은 남자보다 여자의 이용률이 높으며, 15~29세의 연령대의 이용률이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병원」의 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부권, 중부권, 서남부권의 순으로 나타남
- 「병원」의 이용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 사무직이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6-2>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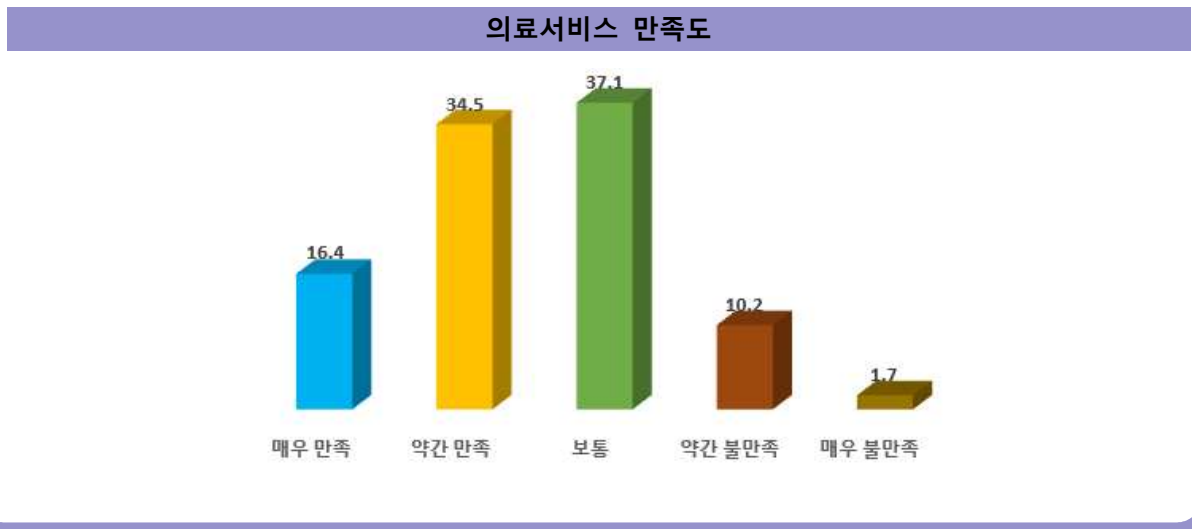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한방 병원)	보건소	약국	기타
2018년	100.0	18.6	66.5	2.8	4.2	7.4	0.4	
〈지역별〉								
중부권	100.0	21.9	69.6	2.3	1.3	4.9	0.0	
북부권	100.0	15.0	73.6	1.7	2.7	5.6	1.4	
서남부권	100.0	17.1	59.5	4.0	8.2	11.0	0.2	
〈성별〉								
남자	100.0	20.7	64.8	3.8	3.2	7.1	0.5	
여자	100.0	16.5	68.3	1.9	5.3	7.7	0.2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6 - 3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는 50.9%가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50.9%, 「보통」 37.1%,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 불만족)」 11.9%의 순으로 나타남
-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는 북부권이 만족도가 높으며, 다음은 중부권, 서남부권 순으로 나타남
- 여자가 남자보다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65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50세~59세, 40~49세, 30~39세, 15~29세의 순으로 나타남



<표 6-3>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8년	100.0	16.4	34.5	37.1	10.2	1.7
〈지역별〉						
중부권	100.0	25.9	30.6	30.1	10.9	2.5
북부권	100.0	16.7	57.2	22.7	2.6	0.9
서남부권	100.0	6.2	26.7	52.4	13.4	1.3
〈성별〉						
남자	100.0	14.5	32.7	38.4	11.8	2.6
여자	100.0	18.3	36.4	35.8	8.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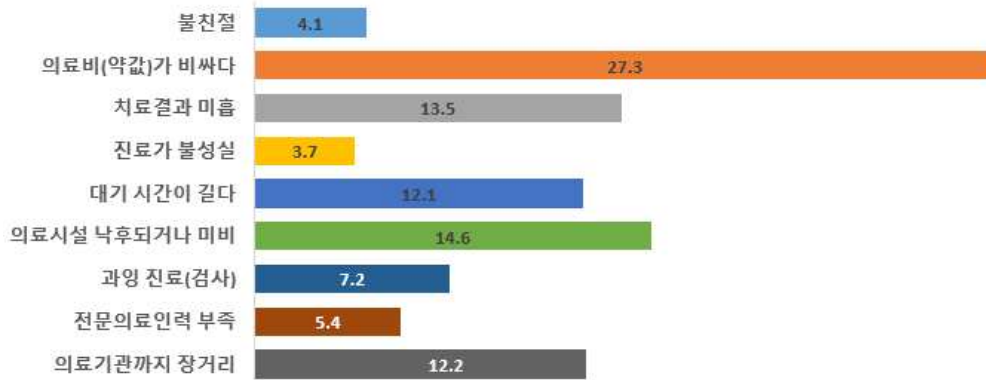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6 - 4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주된응답)

「의료비가 비싸다」가 가장 불만족

- 의료서비스는 불만족은 「의료비가 비싸다」 27.3%,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 14.6%, 「치료결과 미흡」 13.5%, 「의료기관까지 장거리」 12.2%, 「대기 시간이 길다」 12.1%, 「과잉진료」 7.2%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과 북부권은 「의료비가 비싸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서남부권은 「치료결과 미흡」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29세, 30~3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의료비가 비싸다」, 40~49세는 「의료기관까지 장거리」가 높게 나타남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표 6-4>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주된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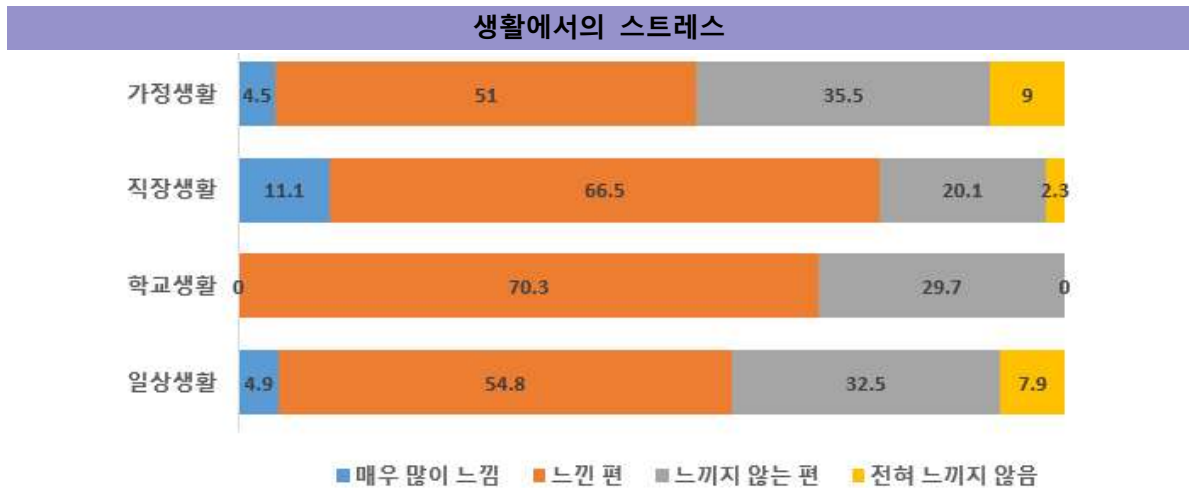
구분	계	불친절	의료비(약값)가 비싸다	치료결과 미흡	진료가 불성실	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 시설 낙후되거나 미비	과잉 진료(검사)	전문의료인력 부족	의료기관까지 장거리	기타
2018년 (지역별)	100.0	4.1	27.3	13.5	3.7	12.1	14.6	7.2	5.4	12.2	
중부권	100.0	0.0	44.8	1.1	3.1	8.9	18.3	14.3	2.3	7.1	
북부권	100.0	0.0	24.0	26.3	0.0	23.5	9.2	0.0	0.0	17.1	
서남부권	100.0	8.5	10.7	24.0	4.6	13.7	11.7	1.2	9.0	16.5	
(성별)											
남자	100.0	3.6	30.0	12.9	6.0	7.5	11.8	10.0	4.8	13.3	
여자	100.0	4.7	23.0	14.4	0.0	19.2	18.9	2.8	6.3	10.5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6 - 5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많이 느낌

-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느낀 편」 51.0%, 「느끼지 않는 편」 35.5%, 「전혀 느끼지 않음」 9.0%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대는 40~49세임
-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해당 없음이 95.7%로 나타났으며, 「느낀 편」 70.3%, 「느끼지 않는 편」 29.7%로 나타남
-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해당 없음이 82.2%로 나타났으며, 「느낀 편」 66.5%, 「느끼지 않는 편」 20.1%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느낀 편」 54.8%, 「느끼지 않는 편」 32.5%의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는 서남부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



<표 6-5>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단위: %)

구분	계	매우 많이 느낌	느낀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가정생활	100.0	4.5	51.0	35.5	9.0
직장생활	100.0	11.1	66.5	20.1	2.3
학교생활	100.0	0.0	70.3	29.7	0.0
일상생활	100.0	4.9	54.8	32.5	7.9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